

‘좌진출로’ 논란...이용섭·강기정 제2순환로 지산IC 공방

좌진출로 지산IC 개통 지연 공방 과정서 통계 논쟁

강기정 “4곳 뿐이다”-이용섭 “20여 곳 이상이다”

각기 언론 인용·제한적 추산치 근거...공식 집계 없어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의 TV토론에서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개통 지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두 후보는 지산IC처럼 전국에 1차로(좌측) 방면 진출로가 몇 곳인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강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TV토론에서 교통사고 위험 우려에 따른 지산IC 개통 지연 문제를 과고들며 이 후보의 민선 7기 시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곧바로 설계 변경 경위·보안 대책을 설명하며 “1차선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곳도 넘는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설계 변경 전 자문 결과 등을 들어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좌진출로가) 제가

알기론 전국에 4곳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서울 올림픽대로에 2곳은 4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안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고, 화순 국도에 있는 것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 무안공항IC 가는 고속도로 끝자락은 종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도 “전국에 4개뿐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보다. 서울 15곳, 경기 1곳, 부산 1곳, 전남...”이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사회자의 진행 발언으로 이 후보는 말을 맺지 못했다.

강 후보가 주장한 전국 좌측 진출로 4곳은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국도 29호선(화순 이양면 램덕마을 방면),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공항IC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산IC 개통 지연을 다룬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던 사례를 인용했으며, 제2순환도로와 여건이 비슷한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 후

보 캠프 측은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도 지난해 10월 7일 자 ‘광주시, 제2순환도로 지산IC 11월15일 개통’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지리적 혹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국도 29호선 화순 램덕마을,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공항IC 등이 좌측 방면 진출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 후보의 발언 근거는 포털 지도 서비스 등을 활용한 추산치에 기반한다.

이 후보 캠프는 ▲서울 15곳(강변북로 내 13개 지점·올림픽대로·성산로) ▲경기 1곳(수도권 1순환도로 의왕시 학의분기점) ▲부산 4곳(황령대로·대영로·충장대로·보수대로) ▲전남 2곳(국도 29호선 램덕마을·무안공항IC) 등 전국 좌측 진출로 구간은 최소 22곳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한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있는 강변북로만 해도, 입지 여건 탓에 성산대교 복단-마포대교-반포대교-서울숲 등 13개 지점이 좌측 진출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전국 각 도로의 좌측 진출로 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각 도로 관리 주체가 나



뉘어 있고 한 번도 공식 집계한 바 없다.

엄밀히 따지면, 이 후보와 강 후보 모두 정확한 좌측 진출로 수를 파악하지 못했다. 강 후보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좌측 진출로 지점이 설치된 도로만을 헤아렸고, 이 후보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산치에 근거해 발언했다.

광주시 보도자료 문구도 전국의 좌측 진출로가 4곳인 것처럼 잘못 독해할 여지를 남겨 혼선을 키웠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산IC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좌측 진출로가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고, ‘20여 곳 이상 있다’는 후보 발언 자체가 사실과 어긋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로 지산IC와 여건이 비슷한 고속화도로만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 수치는 지산IC 개통 지연 문제점을 지적하는 쟁점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관계기관에 공식 통계를 요청했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IC는 차량 흐름 개선과 무등산·지산유원지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양방향 총연장 0.67km,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다. 그러나 독특한 도로 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이나 급정거, 접촉사고 등에 대한 안전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전용차로제 설치 등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 개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이었던 당초 개통 예정일은 무기한 연기됐다.

“2~3개월 후 새 변이 등장...120만명대 유행 율수도” 전망

10~14주 간격 새로운 변이 우세종화
 면역 50% 감소시 100~120만명 유행
 치료제 계획·방역 정책 등 정비해야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2~3개월 후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100만명대의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오후 1시 서울웨스턴조선에서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외 유행 상황을 토대로 한 변이의 우세 지속 기간은 10~14주라고 추산했다.

이미 국내에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가 유입된 상태다.

정 교수는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변이는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발달해 상대적 전파 능력이 상승한다.

유행 예상 곡선을 보면 면역 감소가 25%일 때는 40~60만명대, 면역 감소가 50%로 가정하면 100만~120만명대 유행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추가 접종 등 조치가 이뤄질거라 순전히 이대로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중증화율은 자연감염의 효과, 백신 접종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도 기존 우세종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업데이트된 백신 계획과 먹는 치료제 비축,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 사회

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 감염병 등급 조정 등 다음 유행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연구부장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중 코로나19 후유증인 ‘롱-코비드’, 임신부 확진 등 4개 내외의 공모 과제를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행 예측 등 모델링을 통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 사업으로 2023년까지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기관 내 전문가 기구 및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내외 연구진 교류를 강화하며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모델링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 도입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섬지역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중대본 건의 반영돼 보건지소서 공보의가 처방·조제

전남도가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

이는 전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섬지역에 먹는 치료제 공급이 지연돼 적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에선 파스르비드 1만 8881명분, 라게브리오 3306명분을 배정받아 20일 현재까지 파스르비드는 1만 1973명, 라게브리오는 1031명에게 처방했다.

앞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섬지역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활용해 의약품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서에서 공보의가 적시에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의 처

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섬지역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보건지소서에서 먹는 치료제 즉시 처방이 가능해져 섬 환자의 중증화율을 낮추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임원 환자 대상으로만 처방했던 먹는 치료제를 외래환자에게도 처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의 경우 선박 등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다 보니 불편이 컸다”며 “이번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를 계기로 섬지역 고위험군의 치료를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